

간호관리학실습 교과내용에 대한 중요도와 실습 경험에 대한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의 인식 비교 연구

구옥희¹, 황성우^{2*}

¹백석대학교 간호학과, ²두원공과대학교 간호학과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s of Nursing Students and Clinical Instructors on the Importance of Learning Contents of Nursing Management and Practical Experience

OK-Hee Koo¹, Sung-Woo Hong^{2*}

¹Department of Nursing, Baekseok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Doowon Technic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관리학실습 교과내용의 중요도와 실습 참여 경험에 대한 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의 인식을 비교·분석해 간호관리학실습 개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3개 대학 4학년 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를 대상으로 Mann-Whitney test와 교차분석 등으로 최종 343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 모두 간호관리학실습의 평가항목 중 '의사소통', '대인관계', '책임', '신뢰', '도덕성'을 중요 요소로 인식하였고 간호관리학실습 교과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 상위 10개 항목 중 6개 항목('감염관리', '간호기록관리', '환자간호관리', '약품관리', '환자안전', '간호과오')은 두 그룹이 일치했다. 또한 임상현장지도자는 대인관계 및 관계윤리를 중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간호대학생은 간호사의 '법적책임'을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두 그룹간의 실습경험 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은 모두 간접 참여 경험이 높았으나 현장지도자는 직접 지도 경험이 높았다. 이와 같은 인식 차이가 확인된 교과내용은 학교와 실습기관의 유기적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해 차이를 개선하고 간호대학생의 직접 실습 경험을 증대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nursing management practic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erceptions of nursing students and clinical instructors about the importance of the learning contents of nursing management and their practical experience. The final 343 copies were analyzed using the Mann-Whitney test and cross-analysis, targeting 4th-grade students and clinical instructors at three universities. Both nursing students and clinical instructors recognized 'communic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responsibility', 'trust', and 'morality' as important factors in the evaluation items of practice. Among the top 10 most importantly recognized items among nursing-management practice learning content, six items ('infection control', 'nursing record management', 'patient nursing management', 'drug management', 'patient safety', and 'nursing malpractice') were matched in the two groups. Moreover, clinical instructors recognized tha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relationship ethics were important, while nursing students chose legal responsibility. As a result of the practical experience analysis between the two groups, nursing students had high experience of indirect participation, but the clinical instructors had a high experience of direct instruction. A plan is needed to reduce the difference by establishing an organic partnership relationship between the university and practice institutions and increase the experience of direct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Clinical Instructor, Education, Nursing Management, Nursing Students, Practice Experience

*Corresponding Author : Sung-Woo Hwang(Doowon Technical Univ.)

email: sarajin9@doowon.ac.kr

Received March 10, 2021

Revised March 31, 2021

Accepted June 4, 2021

Published June 30,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인간의 건강 문제와 이에 따른 반응에 대해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이론과 실무를 학습하는 응용학문[1]으로 모든 간호대학생은 졸업을 위해서 반드시 1,000시간 이상의 임상 실습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할 만큼 실무능력을 중요시한다[2]. 간호 학생은 이론 교육을 통해 학습한 지식을 임상 실습에서 실제로 적용해보며 비판적 사고 및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기에 간호교육에서 임상 실습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1]. 또한 임상실습을 통해 자기 정체성이 강화된 간호학생은 임상 현장에 더 오랜 기간 남아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특히 간호관리학 교과목은 간호 전문직관, 간호 철학, 윤리의식 등의 지식을 바탕으로 기획, 조직, 인적자원관리, 지휘, 통제와 간호관리 과정을 실무에 접목시켜 전문직 간호사의 자질과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환자 간호를 수행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한다[4].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간호관리학 실습교과목에서는 리더십 역량, 의사소통술,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력, 관리기술, 관리자 역할 등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5]. 이는 질병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처치 및 간호 중재에 초점을 맞춘 다른 교과목 실습과 간호관리학 실습이 차별화되는 점이다[6].

간호관리학실습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과목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유능한 임상현장지도자의 조력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5] 실제로 간호지도자들의 조직적 지지가 부족하고[4,5] 간호단위관리자에게 의존적인 실습환경으로 인해 간호대학생들이 실습시 애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7]. 그밖에 간호관리학 실습교육의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으로 간호단위관리자가 본인의 주관적 시각으로 학생들의 관리실습을 지도하여 학생들 간의 실습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실습내용의 표준화가 부족하다는 점과 다른 교과목과의 실습 교과내용 차별화 미비 등이 지적되어[4]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내의 간호관리학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수행된 선행 연구는 과제수행방식이 문제해결능력 등에 미친 효과성을 확인한 연구[8], 액션러닝 교수법을 적용하여 간호관리학 이론과 실습에 연계 적용한 후 효과성을 평가한 연구[9], 간호관리학실습에 SBAR를 활용하여 의사소통능

력 등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10], 간호관리학실습을 시뮬레이션 구성으로 개발하여 실습 적용한 후 내용 분석한 연구[6], 간호관리학 실습을 통해 전문직 사회화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 연구[11],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간호대학생들의 간호관리학 임상실습 경험연구[4], 간호대학재학생의 관리학실습 경험연구[5], 간호대학 졸업생의 관리학실습 경험연구[7] 등이 있었다.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로는 간호학생과 교육자가 함께 임상 현장의 리더십을 구축한 경험연구[12], 다학제 팀을 구성하여 팀워크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팀 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효과를 확인한 연구[13], 졸업 예정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 리더십에 대한 경험연구[14] 등이 있었다. 이들 국외 선행 연구를 통해 다학제 팀간의 협력과 리더십 발휘, 의사소통술 등의 대인관계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간호대학생만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학실습 경험과 학생들의 역량 향상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으며 이들을 실습 지도한 경험이 있는 임상현장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특히, 간호관리학 실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습에 참여하는 두 주체인 학생과 현장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이들을 직접 실습지도한 경험이 있는 임상현장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간호관리학실습 평가항목 및 교과내용의 중요도 인식 차이와 실습 경험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여 향후 간호관리학실습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간호관리학실습의 학습성과 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관리학실습 교과내용의 중요도와 실습 참여 경험에 대한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의 간호관리학실습 평가항목의 중요도 인식 차이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의 간호관리학실습 교과내용의 중요도 인식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의 간호관리학실습 참여 경험 또는 지도 경험 차이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관리학실습 평가항목 및 교과내용의 중요도와 실습 참여 경험에 대한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이루어진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및 충청도 소재 3개 대학 간호학과 소속 4학년 재학생과 이들에게 간호관리학실습을 지도한 임상현장지도자이며 간호대학생은 2018년 간호관리학 교과목의 이론 및 실습수업을 이수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320명의 간호대학생들과 58명의 임상현장지도자들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제공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완전한 응답을 보인 학생용 설문지 31부와 임상현장지도자용 설문지 4부를 제외하고 총 343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간호대학생용 연구도구는 4학년 재학생들의 간호관리학실습의 교과내용에 대한 중요도와 실제 참여한 간호관리학실습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폐쇄형과 개방형 질문지 구성되었다. 권[15]의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간호학생의 요구 설문 중 임상실습 운영, 임상실습 현장 여건, 임상실습 내용, 임상실습 지도 및 평가의 4개 영역의 문항을 수정 보완해 활용했다. 임상실습 운영 영역에는 임상실습 전 준비과정, 임상실습 기간, 경험하고 싶은 임상실습 시간, 임상실습 운영체계의 4개 항목을 포함했고 임상실습 현장 여건 영역에서는 임상실습 병원 크기, 학생탈의실 및 컨퍼런스룸 제공, 병동별 실습 학생 수의 4개 항목을 포함했다. 임상실습 교과내용은 2012년 간호학 3차 개정 간호관리학 학습목표를 기준으로 간호관리학 실습과 연관된 임상간호윤리, 간호관리의 이해, 기획, 의사결정, 재무관리, 조직, 인적자원관리, 지휘, 통제, 간호단위관리, 마케팅의 내용이 포함되는 73개 항목을 학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문으로 정의하여 5점 Likert 척도(1점 매우 안 중요 ~ 5점 매우 중요)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교과내용을 직접 경험했는지, 간접 경험했는지, 경험이 없었는지를 표기하도록 하여 실습 참여 경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임상실습 지

도 및 평가 영역은 실습담당교수 역할, 현장지도자 역할, 평가자, 평가기준의 4개 항목을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간호관리학실습이 되기 위한 의견을 개방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상현장지도자용 연구도구는 간호대학생용의 설문 문항 중 임상실습 운영 영역의 4개 문항을 제외하였고 임상실습 지도 및 평가 영역에서 임상실습 현장지도자 역할과 평가기준 문항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외하였다. 임상실습 교과내용은 간호대학생용 설문문항과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나 실습 참여 경험을 실습 지도 경험으로 문구를 바꾸어 구성하였다. 역시 마지막 항목에 간호관리학실습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간호대학생용과 임상현장지도자용 설문지는 간호관리학 전공 교수 4명에게 자문을 받아 적절하다고 판단한 문항을 취하고 일부 용어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고 간호대학생용 설문지는 미취업 졸업생 5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해 설문문항의 명확성과 응답의 용이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여 문제없음을 확인받았다. 또한 임상현장지도자용 설문지는 간호관리학실습지도 경험이 있는 간호관리자 2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해 내용의 이해도와 응답 용이성을 점검받았다.

본 연구의 간호관리학실습 교과내용의 중요도 인식 정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983이었으며 간호관리학실습의 평가기준의 Cronbach's α 계수는 .917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4.0 프로그램[16]을 이용해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현장 여건, 임상실습 지도 및 평가기준, 간호관리학실습 참여 및 지도 경험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간호관리학실습 평가항목 및 교과내용의 중요도 인식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간호관리학실습 평가항목 및 교과내용의 중요도 인식의 그룹 간 차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그룹 간 대상자 샘플 사이즈의 차이가 커 정규성 검정을 먼저 시행하였다. Kolmogorov - Smirnova test, Shapiro - Wilk test 시행하였고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해 비모수 검정인 Mann-Whitney test로 분석하였으며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 그룹의 임상현장지도자 역할 및 간호관리학실습 경험 차이는 교차분석으로 통계처리하였다. 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했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IRB-201806-HR-005). 학과 게시판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게시하여 연구 참여 학생을 모집하였고 참여 희망자에게는 자세한 설명문이 적힌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습기관 최고 간호관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 진행을 허락받았으며 간호관리학실습을 담당하는 임상현장지도자에게 자세한 설명문이 적힌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하도록 안내 후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취득된 정보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공지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여학생이 84.4%로 절대 다수였으며 임상현장지도자는 전부 여성이었다. 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43)

Spec.	Respondents [N(%) or Mean±SD]		
		Nursing Students (N=289)	Clinical Instructors (N=54)
Gender	Male	45(15.6)	0(0.0)
	Female	244(84.4)	54(100.0)
Age	20~29	270(93.4)	0(0.0)
	30~39	12(4.2)	0(0.0)
	40~49	4(1.4)	15(27.8)
	50~59	0(0.0)	38(70.4)
	>60	1(0.3)	1(1.9)
	non-response	2(0.7)	0(0.0)
	Average	26.33±3.61	50.91±5.03
Education	bachelor (senior)	289(100.0)	19(35.2)
	master	0(0.0)	33(61.1)
	doctor	0(0.0)	2(3.7)
Clinical Experience	<10yrs	NA	1(1.9)
	10~19yrs		16(29.7)
	20~29yrs		30(55.6)
	≥30yrs		7(13.0)
	Average		22.72±5.97

호대학생의 경우 평균 연령이 26.33세였으며 임상현장지도자는 50.91세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은 전원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이었으며 임상현장지도자의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가 61.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사학위자가 35.2%를 차지하였다. 임상현장지도자의 임상경력은 평균 22.72년이었다(Table 1).

3.2 간호관리학실습 평가항목의 중요도 인식비교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위 5개의 간호관리학실습 평가항목을 살펴본 결과 일부 순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의사소통', '대인관계', '책임', '신뢰', '도덕성'을 두 그룹에서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룹 간 중요도 인식 차이를 Mann-Whitney test로 검정한 결과 '의사소통'(U=5818.0, p=.001)과 '대인관계'(U=6051.0, p=.00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임상현장지도자들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Table 2).

Table 2.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importance of evaluation items for nursing management practice (N=343)

Variable	Category	Mean±SD	U(p)
Communication	S	4.43±0.653	5818.0 (.001)
	I	4.74±0.442	
Interpersonal relationship	S	4.46±0.606	6051.0 (.003)
	I	4.72±0.452	
Responsibility	S	4.47±0.606	6947.0 (.145)
	I	4.59±0.567	
Trust	S	4.45±0.639	7007.5 (.178)
	I	4.57±0.570	
Morality	S	4.39±0.699	7108.5 (.178)
	I	4.50±0.666	

S: Nursing Students
I: Clinical Instructors

3.3 간호관리학실습 교과내용의 중요도 인식비교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위 10개의 간호관리학실습 교과내용을 살펴본 결과 두 그룹에서 6개 항목은 일치('감염관리', '간호기록관리', '환자간호관리', '약품관리', '환자안전', '간호과오')하였으나 나머지 4개 항목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간호관리학실습 교과내용은 '감염관리', '비밀유지의무', '간호기록관리', '환자간호관리', '약품관리', '간호보고관리', '확인업무', '간호

과오', '환자안전', '법적책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상현장지도자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교과내용은 '감염관리', '환자안전', '약품관리', '간호사와 협력자간 윤리', '간호기록관리', '환자간호관리', '안전관리', '협력과 팀워크관리', '직무스트레스관리', '간호과오' 순으로 나타났다. 두 그룹의 중요도 인식 차이를 Mann-Whitney test로 검정한 결과 '감염관리'(U=6089.0, $p=.006$), '환자안전'(U=6203.5, $p=.013$), '약품관리'(U=6477.5, $p=.044$), '간호사와 협력자간 윤리'(U=5644.5, $p=.000$), '안전관리'(U=6270.0, $p=.02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이들 영역을 임상현장지도자들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Table 3).

Table 3.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importance of nursing management learning contents (N=343)

Variable	Category	Mean±SD	U(p)
Infection control	S	4.52±0.613	6089.0 (.006)
	I	4.75±0.515	
Patient safety	S	4.42±0.641	6203.5 (.013)
	I	4.64±0.591	
Drug management	S	4.44±0.649	6477.5 (.044)
	I	4.62±0.596	
Nurse & collaborator ethics	S	4.29±0.601	5644.5 (.000)
	I	4.61±0.492	
Nursing record management	S	4.46±0.666	6746.5 (.116)
	I	4.60±0.631	
Patient nursing management	S	4.46±0.639	6560.0 (.060)
	I	4.60±0.660	
Safety management	S	4.37±0.670	6270.0 (.020)
	I	4.57±0.694	
Cooperation & teamwork management	S	4.38±0.641	6605.5 (.076)
	I	4.55±0.607	
Job stress management	S	4.35±0.673	6568.5 (.073)
	I	4.55±0.539	
Nursing malpractice	S	4.42±0.652	7154.5 (.393)
	I	4.51±0.608	
Nursing report management	S	4.44±0.632	7299.0 (.542)
	I	4.49±0.639	
Privacy	S	4.48±0.607	7602.5 (.960)
	I	4.49±0.576	
Assertive duty	S	4.43±0.648	7553.0 (.858)
	I	4.45±0.637	
Legal responsibility	S	4.39±0.652	7426.5 (.697)
	I	4.32±0.754	

S: Nursing Students
I: Clinical Instructors

3.4 간호관리학실습 경험 차이 비교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가 각각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위 10개의 간호관리학실습 교과내용(6개 항목 일치하여 총 14개 항목)의 실습 경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간호대학생은 '법적책임' 영역을 제외한 9개 항목에서 간접적으로 실습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임상현장지도자는 '법적책임'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9개 항목에서 직접적으로 실습지도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두 그룹의 실습 경험 차이를 교차분석한 결과, 14개 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법적책임' 항목은 다른 항목과는 달리 간호대학생에서 실습 참여 경험이 전혀 없다고 보고한 비율이 47.0%로 가장 높았으며 임상현장지도자들 역시 다른 항목과 달리 간접적으로 지도한 비율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 4학년 재학생과 이들을 실습 지도 하였던 임상현장지도자들이 간호관리학 실습 평가항목 및 교과내용의 중요도와 실습 참여 경험의 인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두 그룹이 간호관리학실습 평가항목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항목의 차이가 무엇이며 두 그룹이 인식한 중요한 교과내용 차이는 무엇이고 실습 기간 중 중요하다고 인식한 내용을 실제 경험 또는 지도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는 간호관리학실습의 평가항목 중 '의사소통', '대인관계', '책임', '신뢰', '도덕성'을 중요 요소로 여기고 있었다. 특히, 임상현장지도자들이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를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는 간호조직을 관리하고 관리자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발휘하여 간호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역량[4]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간호관리학실습을 통해 수간호사의 리더십과 의사소통을 증진적으로 체험함으로써 다른 교과목과 차별화된 실습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간호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7]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호단위 관리자는 관리업무 특성으로 인해 한 곳에 상주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 사람들과 업무를 진행하며 겉으로 보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에 간호대학생이 관리자

Table 4. Differences in practical experience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clinical instructors according to the learning contents of nursing management

(N=343)

Variable	Practical experience	Nursing Students	Clinical Instructors	Total	$\chi^2(p)$
		n(%)	n(%)	n(%)	
1)Infection control	D	289(100)	54(100)	343(100)	38.12 (.000)
	I	92(31.3)	39(78.0)	131(38.8)	
	N/E	171(59.4)	10(20.0)	181(53.6)	
2)Patient safety	D	25(8.7)	1(2.0)	26(7.7)	26.94 (.000)
	I	95(33.1)	35(71.4)	130(38.7)	
	N/E	147(51.2)	13(26.5)	160(47.6)	
3)Drug management	D	45(15.7)	1(2.0)	46(13.7)	34.76 (.000)
	I	92(32.1)	38(76.0)	130(38.6)	
	N/E	172(59.9)	11(22.0)	183(54.3)	
4)Nurse & collaboration ethics	D	23(8.0)	1(2.0)	24(7.1)	51.22 (.000)
	I	58(20.1)	35(68.6)	93(27.4)	
	N/E	194(67.4)	13(25.5)	207(61.1)	
5)Nursing record management	D	36(12.5)	3(5.9)	39(11.5)	39.41 (.000)
	I	70(24.3)	34(68.0)	104(30.8)	
	N/E	189(65.6)	16(32.0)	205(60.7)	
6)Patient nursing management	D	29(10.1)	0(0)	29(8.6)	44.17 (.000)
	I	84(29.3)	39(78.0)	123(36.5)	
	N/E	180(62.7)	11(22.0)	191(56.7)	
7)Safety management	D	23(8.0)	0(0)	23(6.8)	38.77 (.000)
	I	96(33.3)	40(80.0)	136(40.2)	
	N/E	156(54.2)	9(18.0)	165(48.8)	
8)Cooperation & teamwork management	D	36(12.5)	1(2.0)	37(10.9)	23.81 (.000)
	I	55(19.1)	25(51.0)	80(23.7)	
	N/E	182(63.2)	20(40.8)	202(59.9)	
9)Job stress management	D	51(17.7)	4(8.2)	55(16.3)	35.82 (.000)
	I	34(11.9)	23(46.0)	57(17.0)	
	N/E	153(53.5)	19(38.0)	172(51.2)	
10)Nursing malpractice	D	99(34.6)	8(16.0)	107(31.8)	53.57 (.000)
	I	28(9.7)	25(50.0)	53(15.7)	
	N/E	160(55.6)	19(38.0)	179(53.0)	
11)Nursing report management	D	100(34.7)	6(12.0)	106(31.4)	50.45 (.000)
	I	69(24.0)	37(74.0)	106(31.4)	
	N/E	188(65.3)	13(26.0)	201(59.5)	
12)Privacy	D	31(10.8)	0(0)	31(9.2)	23.26 (.000)
	I	79(27.4)	31(62.0)	110(32.5)	
	N/E	158(54.9)	15(30.0)	173(51.2)	
13)Assertive duty	D	51(17.7)	4(8.2)	55(16.3)	23.81 (.000)
	I	55(19.1)	25(51.0)	80(23.7)	
	N/E	182(63.2)	20(40.8)	202(59.9)	
14)Legal responsibility	D	51(17.7)	4(8.2)	55(16.3)	15.04 (.001)
	I	18(6.3)	11(22.0)	29(8.6)	
	N/E	134(46.7)	24(48.0)	158(46.9)	
		135(47.0)	15(30.0)	150(44.5)	

* D: Direct participation, I: Indirect participation, N/E: No participation experience

** Non-response: 1) S(Nursing students): 1, I(Clinical Instructors): 4, 2) S: 2, I: 5, 3) S: 2, I: 4, 4) S: 1, I: 3, 5) S: 1, I: 4, 6) S: 2, I: 4, 7) S: 1, I: 4, 8) S: 1, I: 5, 9) S: 3, I: 4, 10) S: 1, I: 4, 11) S: 1, I: 4, 12) S: 1, I: 4, 13) S: 1, I: 5, 14) S: 2, I: 4

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업무를 매번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어[5] 간호대학생에게 좋은 의사소통 모델과 대인관계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은 향후 간호관리학실습 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학년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프리셉터 교육을 통한 임상실습 경험이 졸업 후 간호사로 근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선행 연구와[17,18] 다양한 간호사례를 고안해 SBAR를 적용하여 의사소통을 훈련하고 자기주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임상실습 지도한 결과 학생의 자기표현성이 향상되었다는 선행 연구 결과[10]를 참고하여 간호관리학실습에도 의사소통 훈련이 가능한 다양한 사례를 개발하고 역할극을 통해 의사소통술 훈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관리학실습 교과내용 총 73개 중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위 10개 항목을 파악한 결과, ‘감염관리’, ‘간호기록관리’, ‘환자간호관리’, ‘약품관리’, ‘환자안전’, ‘간호과외’의 6개 항목은 동일하게 일치하였으나 임상현장지도자는 ‘간호사와 협력자간 윤리’, ‘협력과 팀워크 관리’, ‘직무스트레스’, ‘안전관리’를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간호대학생은 ‘비밀유지의무’, ‘확인 의무’, ‘법적책임’, ‘간호보고관리’ 항목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임상현장지도자 그룹은 간호관리학 실습 영역에서 대인관계 및 협력적 업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관계 윤리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선행 연구를 통해 직장 내 인간관계 및 직무스트레스가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꾸준히 도출되어[19,20] 간호관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실무적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위해서 대인관계, 협력적 업무 수행 및 관계 윤리 확립, 직무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간호관리학실습에서 다루어줄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간호대학생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비밀유지의무’, ‘확인 의무’, ‘법적책임’ 등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강화되고 있고 [21] 간호사의 역할 확대에 따른 업무 범위 증가 및 독립적 의료행위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사고 발생 시 간호사의 법적책임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22]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다양한 의료사고 판례 등을 소개하고 실제 의료사고 발생 시 처리과정 및 간호 보고 방법에 대한 구체적 프로토콜을 간호관리학실습을 통

해 학습하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두 그룹 모두 ‘감염관리’, ‘환자안전’, ‘약품관리’, ‘안전간호’는 간호관리학실습 교과내용 중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특히 간호대학생 보다 임상현장지도자들에게서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 관리영역의 중요성을 간호대학생이 더 잘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호관리 이론 교육 시 이 부분에 대한 강화된 학습활동을 경험하게 함과 더불어 임상 실무에서 이 영역을 수행하는 간호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가 간호관리학실습 교과내용 중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각각의 10개 항목에 대한 실습 참여 또는 지도 경험을 분석한 결과, 1개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은 모두 간접 참여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현장지도자는 직접 지도 경험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간호관리학실습을 지도하는 임상현장지도자는 수간호사 등 관리자 임무를 수행하면서 실습 지도해야 하므로 시간적 제약이 있으며 각종 회의 참석 및 외부 교육 등으로 직접적인 지도를 하지 못하고 병동 지킴서 제공이나 관련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7] 이때 실습을 경험한 학생은 간접 지도를 받은 것으로 보고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간호관리학실습이 간호관리자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많으므로 관리자에 의존적인 실습 현장 상황임을 반영하는 결과로 사료된다[5]. 임상현장의 간호관리자들은 대략적인 간호단위 관리 관련 정보를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공한 후 일반간호사에게 실습 교육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간호관리학실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간호사는 성인간호학 임상실습과 유사하게 지도하기 때문에 교과목의 차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간호관리학실습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4, 5]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임상 실습 기간 중 간호대학생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항목은 ‘법적책임’, ‘간호과외’, ‘직무스트레스 관리’, ‘협력과 팀워크 관리’, ‘비밀유지의무’, ‘확인 의무’ 순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학생의 약 20% 내외가 이 항목의 실습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는 병원 입장에서 민감한 정보이기도 하고 간호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이론적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된 선행 연구 결과[7]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습에서 경험하지 못한 주제에 대해 가

상현실 시뮬레이션 교육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법도 학생들의 관리능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이라고 여겨진다[23]. 또한 학교와 실습 기관 간의 유연하고 밀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간호관리학실습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24] 간호관리자를 대신해 간호관리학실습을 지도하는 일반간호사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관리역량을 강화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호관리학실습 전담지도자나 프리셉터 양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서 프리셉터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임상간호사 대상 연구[25]에서도 프리셉터로 참여했을 때 더 학생의 적응과정을 살피고 자세히 교육하고 학생의 상황을 파악하며 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단순히 술기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총체적인 환자 파악이 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자신들도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실습교육 전담간호사는 비단 학생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 참여함으로써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 확립과 간호의 본질을 숙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26].

간호관리학실습 전담지도자의 배치를 통해 간호관리학실습을 간호단위관리자에게만 의존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일반간호사가 간호관리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이유와 관점을 확립할 수 있게 하므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상현장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관리학실습 컨퍼런스에 간호단위관리자 또는 간호관리학실습 전담지도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직접 관찰이나 경험이 어려운 간호관리 상황과 사례를 간호대학생들이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 사고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관리학실습 교과내용의 중요도와 실습 참여 경험에 대한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이루어진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 모두는 간호관리학실습의 평가항목 중 ‘의사소통’, ‘대인관계’, ‘책임’, ‘신뢰’, ‘도덕성’을 중요 요소로 여기고 있었는데, 특히 임상현장지도자 그룹이 ‘의사소통’과 ‘대인관계’를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간호관리학실습 교과내용 73개 항목 중 그룹별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상위 10개 항목을 파악한 결과, ‘감염관리’, ‘간호기록관리’, ‘환자간호관리’, ‘약품관리’, ‘환자안

전’, ‘간호과외’의 6개 항목은 두 그룹 동일하게 일치하였으나 임상현장지도자는 ‘간호사와 협력자간 윤리’, ‘협력과 팀워크 관리’, ‘직무스트레스’, ‘안전관리’를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간호대학생은 ‘비밀유지의무’, ‘확인의무’, ‘법적책임’, ‘간호보고관리’ 항목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임상현장지도자는 대인관계 영역에서 보다 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두 그룹이 간호관리학실습 교과내용 중 중요하다고 인식한 상위 10개 항목에 대한 실습 참여 또는 지도 경험을 분석한 결과, ‘법적책임’ 항목을 제외하고 간호대학생은 모두 간접 참여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임상현장지도자는 직접 지도 경험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실무 현장에서 관리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임상현장지도자들이 모든 학생에게 간호관리학실습 지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할 수 없는 현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로 향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간호관리학실습은 대상자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간호중재에 초점을 맞춘 다른 실습교과목과는 차이가 있기에 이러한 차별성을 이해하는 간호관리자의 준비와 세부 지도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간호대학과 실습기관은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간호관리학실습 전담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한다. 추후 이러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및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연구가 지속되기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일부 간호대학생과 임상현장지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기에 그 결과를 확대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이다. 향후 더 많은 참여자를 확보하여 간호관리학실습의 운영 실태 및 사례와 방법들에 관한 반복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Y. M. Kim, Y. H. Kim,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ction learning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0, No.6, pp.312-322, 2010.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0.10.6.312>
- [2] M. Kim, J. Park, A. Han, "Analysis of Curriculum of 4-year Nursing Schools", *J Korean Acad Soc Nurs Edu* Vol.17, No.3, 414-423, December, 201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3.414>
- [3] H. Tseng, H. Wang, W. Weng,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toward the nursing profession from

- clinical practicum in a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 - A qualitative study”, *Kaohsing Journal of Medical Sciences*, Vol.29, pp.161-168, 2013.
DOI: <http://dx.doi.org/10.1016/j.kims.2012.08.027>
- [4] K. H. Kang, S. Yu, “Analysis of Students Experience related of Nursing Management Clinical Practice: Text Network Analysis Method”, *J Korean Acad Nurs Adm*, Vol.22, No.1, pp.80-90, Jan. 2016.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6.22.1.80>
- [5] M. Han, M. Jeon, “Nursing Student’s Nursing Management Clinical Practices Experienc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14, pp.93-107, 2018.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8.18.14.93>
- [6] J. Y. Lim, G. J. Ko, “Analysis and Application of Nursing Management Practicum Case Simulation for Developing Performance-Centered Educ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9, pp.235-254, 2017.
DOI: <https://doi.org/10.5392/JKCA.2017.17.09.235>
- [7] K. Park, J. K. Kim, “Experience of Nursing Managemnet Practice in Graduate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 Vol.25, No.4, pp.259-271, 2019.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9.25.4.259>
- [8] M. H. Lee, H. K. Kim, S. H. Jeong, I. O. Moon, “Effects of Task Performance Style in Nursing Management Practicum on Problem-Solving and Nursing Competency according to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7, No.1, pp.106-114, 2011.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1.17.1.106>
- [9] K. S. Jang, S. J. Park, “Effects of Action Learning Approaches on Learning Outcomes in Nursing Management Co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8, No.4, pp.442-451, 2012.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2.18.4.442>
- [10] W. J. Kim, S. Y. Kim,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Nursing Management Practice using SBAR on Nursing Students' Self-expressiveness, Communication Skills, and Abilities to Think Criticall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9, pp.457-472, 2016.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6.16.9.457>
- [11] I. Park, M. Seo, S. Ahn, “A Study on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Capacity, 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 and Teamwork of Students of Nursing Management Practice on Professional Socialization”, *Health Service Management Review*, Vol.14, No.2, pp.13-25, 2020.
DOI: <http://dx.doi.org/10.18014/hsmr.2020.14.2.13>
- [12] L. Ha, J. Pepin,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and educators during the co-construction of clinical nursing leadership learning activities: A qualit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study”, *Nurse Education Today*, Vol.55, pp.90-55, Aug. 2017.
DOI: <https://doi.org/10.1016/j.nedt.2017.05.006>
- [13] V. Baker, R. Cuzzola, C. Knox, C. Liotta, C. S. Cornfield, R. D. Tarkowski, C. Masters, M. McCarthy, S. Sturdivant, J. N. Carlson, “Teamwork education improves trauma team performance in undergraduate health professiona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Vol.12, No.36, 2015.
DOI: <https://doi.org/10.3352/jeehp.2015.12.36>
- [14] W. Démeh, K. Rosengren, “The visualisation of clinical leadership in the content of nursing education?A qualitative study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Nurse Education Today*, Vol.35, No.7, pp.888-893, Jul. 2015.
DOI: <https://doi.org/10.1016/j.nedt.2015.02.020>
- [15] I. S. Kwon, “An Analysis of Research on Clinical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2, No.5, pp.706-715, Oct. 2002.
DOI: <https://doi.org/10.4040/jkan.2002.32.5.706>
- [16] IBM Corp,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 Version 24.0, IBM Corp, 2011.
- [17] K. Casey, R. Fink, C. Jaynes, L. Campbell, P. Cook, V. Wilson, “Readiness for Practice: The Senior Practicum Experie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50, No.11, pp.646-652, 2011.
DOI: <https://doi.org/10.3928/01484834-20110817-03>
- [18] P. P. Nippak, T. Andrea, T. Andrea, I. Candace, I. Winston, “An Evaluation of Preceptors' Perceptions of the Practicum Experience”, *The Journal of Health Administration Education*, Vol.31, No.1, pp.37-57, 2014.
- [19] J. H. Park, “Turnover Reduction Strategy of New Graduate Nurs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8, pp.833-842, Aug. 2017.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8.44>
- [20] E. A. Ji, J. S. Kim, “Factor Influencing New Graduate Nurses'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Length of Service”, *J Korean Acad Nurs Adm*, Vol.24, No.1, pp.51-60, Jan. 2018.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8.24.1.51>
- [21] M. Kim, “A study 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CTV in Operating Room”, *Medical Law*, Vol.20, No.1, pp.109-132, 2019.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7269>
- [22] Y. S. Kim, T. E. Kim, “Analysis of Legal Liability in Medical Accident due to Nursing Practice through Precedents”, *Korean J Leg Med*, Vol.43, No.4, pp.119-128, 2019.
DOI: <https://doi.org/10.7580/kilm.2019.43.4.119>
- [23] Y. Ki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cenario-based Admission Management VR content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26, No.1, pp.209-216, 2021.
DOI: <https://doi.org/10.9708/jksci.2021.26.01.209>
- [24] J. Y. Lim, G. M. Kim, J. Kim, K. W. C. S. E. O,

"Influence of Cost Management Perception and Attitude on Cost Management Behavi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8, No.2, pp.1109-1122, 2016.
DOI: <https://doi.org/10.5392/JKCA.2016.16.05.113>

- [25] J. S. Park, S. Y. Jang, "Preceptors' Experiences of Clinical Nurse in the Integrated Nursing Practice: Waiting and Going Together with Burden to Take on Preceptee", *Journal of Learner -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7, pp. 959-985, 2018.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8.18.7.959>
- [26] S. Lim, S. Hong, S. Kim, S. Kim, Y. Kim, "Lived Experience of Clinical Nursing Instructors' Role in Clinical Practicum", *J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25, No.4, pp.484-495, 2019.
DOI: <https://dx.doi.org/10.5977/jkasne.2019.25.4.484>

구 옥 희(Ok-Hee Koo)

[정회원]



- 1989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2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 간호리더십, 간호윤리, 인성, 전문직관

황 성 우(Sung-Woo Hwang)

[정회원]



- 199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이학사)
- 199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두원공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 간호인력정책, 간호정보학, 간호리더십